

수수동사 ‘くれる · くださる’에 관한 고찰*

- 에도기부터 다이쇼기의 작품속의 여성화자의 사용례를 중심으로-

양 정 순
(경희대학교)

1. 머리말

현대 일본어에서 ‘くれる’ ‘くださる’는 시점 및 상하관계에 제약이 있는 동사로서, 화자와 대인 관계에 따라 그 사용이 결정된다. 奥津敬一郎¹⁾는 ‘くれる’와 ‘くださる’의 대인관계에 따른 사용에 대해, ‘くれる’는 ‘주는 자’가 ‘받는 자’와 대등하거나 손아래의 인물에 해당되고, ‘くださる’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손위의 인물에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沼田義子²⁾는 화자와 ‘주는 자’와의 대인관계에 대해, 화자가 ‘주는 자’를 자신과 거리가 먼 사람(外)으로, ‘받는 자’를 자신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内)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주는 자’를 자신과 가까운 사람으로 다룰 것인지 먼 사람을 다룰 것인지는 심리적인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논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선 친족인 인물이 <외적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 - 2011 - 35C - A00667]”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 - 2011 - 35C - A00667]”

1) 奥津敬一郎「日本語の授受動詞構文」-英語・朝鮮語と比較して-『人文学報』 132 東京都立大学, 1979

2) 沼田義子「授受動詞文と対人認知」『明治書院』, 1999

인물> 이고, 타인이 <내적 인물>이 될 수 있는데, 화자는 항상 <내적 인물>이라고 분석했다. 金久保紀子³⁾는 수수동사 ‘くれる’와 ‘くださる’의 대우표현에 있어서 플라이트니스(Politeness, 丁寧さ)로 접근했으며, 상대에게 호의나 친근감을 나타내는 포지티브 플라이트니스(positive politeness)와 상대와 거리를 두고자 하는 네거티브 플라이트니스(negative politeness)로 분류, 수수표현의 ‘-恩恵’는 positive politeness에 해당되고, ‘+恩恵’는 negative politeness에 해당된다고 서술했다. 尾形佳助⁴⁾는 ‘くださる’의 ‘お~になってください’ ‘お~ください’의 차이점에 초점을 두고 화자와 상대와의 입장을 고려해 의뢰, 지시, 외경(畏敬) 존경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또 수수표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화자는 ‘받는 자’인 동시에 ‘주는 자’인 상대에게 경의를 갖고 공손하게 대우해야만 하는 입장임을 인식해야 된다고 대인관계에 따른 표현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수수동사 ‘くれる · くださる’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본고는 여성화자의 발화를 중심으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언어변혁의 시도가 있었던 메이지기와 에도기 및 다이쇼기의 ‘くれる · くださる’의 사용양상을 시대 순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여성화자가 사용한 ‘くれる’ ‘くださる’에 대해 시대 순으로 작품을 분류하고, 어형에 따른 사용실태와 화자가 형성하고 있는 대인 관계에 따른 대우표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메이지기는 신분제도 철폐, 평민교육의 확대, 국어 정책 등 일본 근대사에 있어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던 시기였다⁵⁾. 과거 일본 여성들이 국민이라는 이름의 남성의 소유대상이나 부속물로서 국민공동체의 외부에 해당되었던 사회적 위치는⁶⁾ 메이지기의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여성의 교육도 확대되면서 신문 투고나 글을 쓰는 등 자신의 소리를 내는 위치가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여성의 사회적 변화는 에도기에서 메이지기를 거쳐 다이쇼기에 이르는데 있어서 대인관계 및 대인관계에 따른 언어활동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3) 金久保紀子「待遇表現としての授受表現」, 『日本文化研究』第四号, 1993

4) 尾形佳助「(て)ください」の文法, 神戸松蔭女子学院大学, 文林30, 1996

5) 松村明『江戸語・東京語の研究』東京堂, 1974, pp86-103

6) 히라타 유리『여성표현의 일본근대사』소명출판 2008, pp.6-13

이에 분석 작품으로, 에도어의 잔재가 남아있고 언문일치 작품으로 나아가는데 교량적 역할을 했던『当世書生氣質』와 메이지 전기 후기⁷⁾에 걸쳐 언문일치를 시도·발전·완성시킨 작품을 택했다. 나아가 여성화자의 특징을 알기 위해 메이지기의 대표적인 여성작가 樋口一葉의 작품을 더해, 다이쇼기의 작품과 에도인의 언어를 회화의 형태로 나타낸 동시에 애독자가 주로 여성에 해당되었다는⁸⁾ 『人情本』을 선정했다.

為永春水『春色梅児誉美』(덴포 3년, 1832), 『春告鳥』(덴포 7·8년, 1836·37)

坪内逍遙『当世書生氣質』(메이지 18년, 1885년)

二葉亭四迷『浮雲』(메이지 20년, 1887년)

山田美妙『夏木立』(메이지 21년, 1888년)

樋口一葉『うもれ木』(메이지 25년, 1892년)『闇桜』(메이지 25년, 1892년)

『大つごもり』(메이지 27년, 1894년)『にごりえ』(메이지 28년, 1895년)

『たけくらべ』(메이지 28년, 1895년)『わかれ道』(메이지 29년, 1896년)

尾崎紅葉『多情多恨』(메이지 29년, 1896년)

島崎藤村『破戒』(메이지 39년, 1906년)

夏目漱石『ころも』(다이쇼 3년, 1914년)

森鷗外『山椒太夫』(다이쇼 4년, 1915)

有島武郎『或る女』(다이쇼 2년·7년, 1913·1918년)

川端康成『伊豆の踊子』(다이쇼 15년, 1927)

[용례는 각 자료의 밑줄 친 부분만 표기한다.]

2. くれる

‘くれる’은 화자가 대등 또는 손아래의 인물인 ‘주는 자’에게 시점을 둔 ‘주다 동사’로, ‘주는 자’에게서 화자 또는 ‘화자와 가까운 인물’인 ‘받는 자’에

7) 주5)와 같은 책.

8) 주6)과 같은 책. 메이지 20년 이후부터 메이지 끝 무렵까지의 시기를 메이지 후기라 명명했다.

게 대상이 이동될 때 사용된다.

2.1 본동사로서의 ‘くれる’

분석 작품에서 본동사로서 여성화자의 ‘くれる’의 사용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적었다.

[표 1] 작품에 나타난 본동사 ‘くれる’의 어형별 용례 수

	春	鳥	当	浮	夏	樋	多	破	田	蒲	こ	山	或	伊
∅	1	1	×	1	1	1	1	2	2	×	×	×	×	×
+ます	×	×	×	×	×	×	×	×	×	×	×	×	×	×
お+∅	×	2	1	×	×	1	2	×	×	×	×	×	×	×
さっしやる	1	×	×	×	×	×	×	×	×	×	×	×	×	×
お+なんす+∅	1	×	×	×	×	×	×	×	×	×	×	×	×	×
お+なます+∅	×	1	×	×	×	×	×	×	×	×	×	×	×	×

[표 1]에서 보면 에도기의 작품에서는 ‘くれる’ 및 ‘おくれる’ 이외에 ‘~さっしやる’, ‘なんす’ ‘なます’ 등의 여성어가 접속된 ‘お~なんす’ ‘お~なます’ 등이 보였고, 이러한 표현은 메이지기 및 다이쇼기의 작품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본동사로서의 ‘くれる’은 예(1)~(4)와 같이 ‘与える’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동대상의 종류로서 ‘お茶’와 같이 ‘마실 것’ ‘먹을 것’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물 이외에도, 예(1)과 같이 휴식시간과 같은 기간이나 예(7)과 같이 ‘인물’이 있었다. 대화의 장에 화자와 상대 두 사람만 존재할 경우, 여성화자는 주로 예(1)~(4)에서 보인 바와 같이 ‘お’가 접속된 표현을 사용했다.

- (1) 姉御が病気で二三日日間をお呉なせへ [『春』お蝶→お隅]
- (2) 左様かへ。それぢやァ其中でいゝのを撰で二百文だけおくれ [『鳥』お民→八百屋]
- (3) 「さウ。ア、苦しかった。早くお茶でもおくれなネエ。」 [『当』小年姐さ]

ん→田の次]

- (4) 「お茶を一つおくれな.」[『多』お政→お鍋]

이처럼 본동사 ‘くれる’은 ‘주는 자’로부터 선물(도움, 공감, 이해, 협력)을 받는다는⁹⁾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1)~(4)와 같이 대화의 장면이 화자와 청자 두 명만 존재하는 경우와 예(5)~(7)와 같이 제 3의 인물이 대화의 장에 포함되어 화자와 청자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5) 私の好きなものをくれさっしたよ[『春』此糸→お民·かげ八]
 (6) 「姉さん、ご覧よ、この雛輿を」姉ハ来て見て、思はず又も情の水を「
 あ、叔母さんが呉れたのか」[『夏』女の子→姉さん]
 (7) それとはっきり言ったわけじゃないけれど、たって望めばくれるよ
 うな様子だったから[『田』清三の母→清三]

대화의 장면에서 ‘주는 자’가 화자와 청자보다 손위의 인물인 제 3의 인물인 경우, 에도기의 작품『春色梅児誉美』에서는 예(5)와 같이 경의의 뜻을 나타내는 ‘さっしやる’의 표현과 함께 사용한 예가 있었으나, 이와 같은 표현은 메이지의 작품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예(6) (7)과 같이 ‘주는 자’가 청자보다 손 위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주는 자’가 화자와 청자랑 친밀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인물일 경우에는 ‘くれる’가 사용되었다.

2.2 보조동사로의 ‘くれる’

분석 작품 내에서 보조동사 ‘くれる’에 대한 여성화자의 표현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했다.

9) 村田和代 「ポライトネス」『朝倉日英対照言語学シリーズ7 語用論』, 2012, pp.108-129

[표 2] 작품에 나타난 보조동사 ‘くれる’의 어형별 용례 수

	春	鳥	当	浮	夏	樋	多	破	田	蒲	こ	山	或	伊
∅	6	7	3	4	×	10	1	9	2	3	2	1	9	2
+ます	×	3	×	×	×	×	1	1	×	×	×	2	1	×
お+∅	12	34	3	3	2	18	×	1	1	×	1	5	13	1
さっしやる	3	10	×	×	×	×	×	×	×	×	×	×	×	×
さっしやる+ます	×	×	×	×	×	×	×	×	×	×	×	×	×	×
お+ます	×	×	×	×	×	×	×	×	×	×	×	×	×	×
お+なざる+∅	24	2	×	7	×	×	×	×	×	×	×	×	×	×
お+なざる+ます	3	2	×	×	×	×	×	×	×	×	×	×	×	×
お+なんす+∅	5	2	×	×	×	×	×	2	×	×	×	×	×	×
お+なます+∅	3	22	×	×	×	×	×	×	×	×	×	×	×	×
お+なはる+∅	3	×	×	×	×	×	×	×	×	×	×	×	×	×

에도기의 분석 작품 속에서 보인 여성화자의 특징적인 어형으로서 ‘お~なます’ ‘お~なんす’ ‘お~なはる’ ‘お~나ざる’ 등이 있었고, 그 가운데 ‘お~나ざる’은 메이지 10년대의 작품과 20년대의 작품에서 그 사용례가 보였다.

‘お~나ます · 나ざる · 나하る’ 등의 여성화자의 사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8)モウ若旦那お前んが、其様に柔和言て呉さつしやると、又猶の事飯のが否に成まさァな、アイサ まことにさつしておくんなんしエ [『春』此糸→半兵衛]
- (9)ヲヤ鳥雅さま、堪忍しておくんなまし.[『鳥』薄雲→鳥訝]
- (10)急度モウどんな事が有ても変る心を出してお呉なさい升なヨ [『春』米八→丹次郎]
- (11)娼妓エお前さんがそんに言てお呉なざると私はモウ、母人ででも有様に思はれて悲ヨ [『春』お蝶→此糸]
- (12)お前さんが官員に成つてお呉んなさならなきやア、私どもが立往か無いと云ふんぢや無いから、無理に何ですよ、勧めはしませんよ。 [『浮』お政→文三]

에도기의 작품에서 'くれる'은 'さっしやる' 'お~なます' 'お~なさる' 등이 접속된 어형이 다수 보였는데, 이 때 '주는 자'는 화자보다 손위의 인물에 해당되었고, 동작 주체에 대한 경의를 나타냈다. 그러나 에도기의 작품에서 주로 존경 표현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お~なさる'를 이용한 어형은 메이지기의 작품에서 예(12)와 같이 '주는 자'가 손아래의 성인 남성에게 해당되었고, 화자는 '주는 자'에 대한 존중을 표하고 있었다. 또 에도기의 작품에서 손위의 인물에게 해당되었던 'お前さん'은 메이지기에는 손아래의 인물에게도 사용되었다.

- (13) アア、そんなら何卒行て来てくれな、秋葉様の裏門を不拔にむさしやの横手を真直行と近いそうだよ。[『春』お由→お蝶]
 (14)何時まで此処に居て呉れば最うお友達でも何でも無い、[『樋口・たけくらべ』美登里→正太]

'くれる'의 어형은 사용례가 적었지만, 예(13)(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는 자'는 가족, 동생 같은 존재, 친구 등 손아래의 인물 및 대등한 관계에 해당되었다. 분석 작품에선 'くれる'의 명령형으로 'くれ'와 'くれろ'의 어형이 병행되어¹⁰⁾ 사용되었지만, 여성화자의 경우는 'くれ(おくれ)'쪽이 주를 이루었다.

상대 또는 제 3자에 대한 가벼운 경의를 나타내는 'お'¹¹⁾가 접속된 'おくれる'의 여성화자의 사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5) ㄱ、清や、はやく往て来ておくれヨ [『鳥』お熊→清]
 (16) 金どんおまへはネ、梅どんと一所にあちらへいつてネ、もう直にお帰になるから、用意をして車夫にさういつてお呉れナ。[『当』お年→金]
 (17) いゝえ、放擲ツといとくれ、何だか云ふ事が有るツていふんだか

10) 佐久間鼎, 『現代日本語の表現と語法』, 厚生閣, 1936, p.359

11) 井出洋子, 「待遇表現と男女差の比較」 『日英語比較講座第5巻文化と社会』, 1982, p.114

- ら、それを……聞かないうちは……いゝえ、私や、……あんまり人を軽蔑した……いゝえ。[『浮』お勢→文三]
- (18) 叔母さんよゥ、叔母さんよゥ、かへして御呉れよ、妾の雛唄をさァ。さァ活かして返して御呉れよゥ [『夏』女の子→叔母さん]
- (20) 押かけて行つて引ずつて来るからさう思ひな、ほんとお湯なら歸りに屹度よつてお呉れよ、[『樋口・にぎりえ』お力→行人]
それはだれよりもお前が知ってておくれだわね。[『或』葉子→葉子の乳母]
- (21) 「愛さん貞ちゃん古藤さんがお歸りになるといけないから早く来ておとめ申しておくれ」[『或』葉子→愛子・貞子]

‘おくれる’의 어형은 에도기의 작품에서부터 다이쇼기의 작품까지 모두 사용되었다. ‘주는 자’는 화자와 친숙한 관계의 인물, 하녀 및 시종과 같은 손아래의 인물 및 손위의 인물 모두 해당되었으나 주로 손아래의 인물에 해당되었다. ‘오くれる’은 예(17)(18)과 같이 단호한 명령을 다소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사용되었다. 호칭에 있어서 여성화자는 행위의 ‘주는 자’에게 각각 ‘さん’과 ‘ちゃん’의 호칭을 사용했는데, 화자는 ‘さん’에 해당하는 인물보다 ‘ちゃん¹²⁾’에 해당하는 인물에게 친밀감과 애정을 담고 있었다.

다음은 ‘くれる’의 화자의 성차에 따른 사용수를 알아보려고 한다.

현대 일본어에서 ‘くれる’은 비교적 여성보다 남성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¹³⁾ 에도기의 작품부터 다이쇼기의 작품 속에 사용된 여성화자의 ‘くれる’의 용례 수를 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작품에 나타난 ‘くれる’의 화자별 용례 수

春	鳥	当	浮	夏	樋	多	破	田	蒲	こ	山	或	伊
62/28	86/59	7/66	15/8	3/23	30/51	5/69	15/103	5/18	3/3	3/18	8/4	23/27	3/4

[작품에서 보인 ‘くれる’의 여성화자의 용례 수 / 남성화자의 용례 수]

12) 에도기에서 ‘ちゃん’은 하층사회의 용어로, 소어어(小兒語)로 다루었다. 前田勇 『江戸語の辞典』講談社, 1979

13) 佐藤里美 「してくれ・してください」『ことばの科学5』, むぎ書房, 1992, pp109-174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사용수에 비해 여성화자의 사용수는 에도기의 작품과 비교해 볼 때 메이지기의 작품에서는 눈에 띄게 감소했다. 에도기의 작품에서 여성화자의 'くれる' 사용률이 『春色梅児誉美』에서는 69%, 『春告鳥』에서는 56%를 차지했고, 이 시기의 'くれる'의 어형은 여성어로 다루고 있는 'お~なはる' 'お~なます' 'お~なんす' 등이 접속된 표현이 주를 이루었다.

다음은 'くれる'의 존경 표현인 'くださる'에 대해 서술한다.

3. くださる

'くださる'는 화자가 손위의 인물인 '주는 자'에게 시점을 둔 '주다 동사'로, '주는 자'에게서 화자 또는 '화자와 가까운 인물'인 '받는 자'에게 대상이 이동될 때 사용된다.

3.1 본동사로서의 'くださる'

본동사로서 사용된 어형 및 용례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작품에 나타난 본동사 'くださる'의 어형별 용례 수

	春	鳥	当	浮	夏	樋	多	破	田	蒲	こ	山	或	伊
くださる	×	×	1	×	×	1	×	×	×	×	×	1	2	×
くださる+ます	×	×	×	×	×	×	×	×	×	×	×	×	1	×
お~くださる	×	×	×	×	×	×	×	×	×	×	×	×	×	×
お~なさってください	×	×	×	×	×	×	×	×	×	×	×	×	×	×
お~なってください	×	×	×	×	×	×	×	×	×	×	×	×	×	×

본동사로서의 'くださる'는 'くれる' 만큼 어형이 다양하지 않았고, 예 (18)(19)와 같이 'お与えになる'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동대상의 종류로

서 ‘端書’ ‘おたより’ ‘錢’ ‘刀’ 등이 있었다.

(22) よもや御病氣ぢやアあるまいのに、端書の本も下さらないとは、
[『当』田の次→小町田繁爾]

(23) いゑいゑ姉さんの繁昌するやうにと私が願をかけたのなれば、参ら
ねば氣が済まぬ、お賽錢下され行つて来ます [『樋口・たけくらべ』
美登里→美登里の母]

에도기의 작품 『春告鳥』에서 보인 ‘くださる’는 여성화자의 사용례는 아
니었지만,

目をかけし友だちまたは彰簡などの方へ毎度手紙を下し

예(24)과 같이 이동대상으로는 ‘手紙’로, ‘보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본동사로의 ‘くださる’는 ‘주는 자’로 부터 선물(도움이, 공감, 이해,
협력)을 받는다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주는 자’는 ‘받는 자’보다 손위의 인물
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예(22)(23)와 같이 대화의 장면에서 화자와 청자 두 명만 존재하는 경우와
예(25)(26)와 같이 제 3의 인물이 대화의 장에 포함되어 화자와 청자가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5) お父うさまの下さった護り刀を大切にまし。[『山』 厨子王の母→厨
子王]

(26) 「たまにおたよりをくださいます」[『或』愛子→葉子]

예(25)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청자와 일치)’와 화자보다 손위의 인물이
자 가부장적 사회속의 가장이거나, (26)처럼 ‘주는 자’와 화자(‘받는 자’와 일
치)보다 손위의 인물에 해당될 때 ‘くださる’가 사용되었다. ‘くださる’는
대화에서 ‘주는 자’가 손위의 인물일 때와 화자가 거리감을 느끼는 인물일

때 사용되었다.

3.2 보조동사로서의 'くださる'

분석 작품 내에서 보조동사로서의 여성화자의 'くださる'의 어형은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お~くださる' 'お~なさってくださいる' 'お~になってくださる' 등이 보였다.

[표 5] 작품에 나타난 보조동사 'くださる'의 어형별 용례 수

	春	鳥	当	浮	夏	樋	多	破	田	蒲	こ	山	或	伊
くださる	1	3	7	3	1	53	11	10	3	3	13	1	71	3
くださる+ます	6	8	×	×	×	2	4	1	×	×	×	2	57	5
お~くださる	×	×	×	1	1	×	1	×	×	6	×	×	4	1
お~くださる+ます	×	×	×	×	×	×	×	×	2	3	×	1	9	1
お~なさってくださいる	×	×	×	×	×	×	×	1	×	×	×	×	×	×
お~なさってくださいる+ます	5	1	×	×	×	×	×	1	×	×	×	1	1	×
お~になってくださる	×	×	×	×	×	×	×	×	×	×	×	×	×	×
お~になってくださる+ます	×	×	×	×	×	×	×	×	×	×	×	×	1	×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くださる'는 메이지기 및 다이쇼기의 작품에서 사용수와 어형이 많았다. 분석 작품에서 보인 'くださる'의 문자 표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27)最これから氣をつけますから、どふぞ堪忍して被下まし。[『鳥』お民 →寅吉]
- (28)昨夜恙なく帰宅致し候儘御安心被下度、此の度はまことに御忙しき折柄種々御心配ばかり相懸け候うて申訳も無之、幾重にも御詫申上候、[『蒲』芳子 → 時雄]
- (29)一年に一度や二度、兄さんにお目に懸つてからって、お父さんがお叱もなさるまいから、内々で呼んで下さいよ。貴方も御修業中ですから、何でせうから、あの、何は、妾が如何ともしませいから、[『当』田の次 → 小町田燦爾]

(30)襟は質素なれば伯母さま懸けて下され [『樋口・大つごもり』お峰→伯母]

과거에 ‘くださる’가 ‘被下’¹⁴⁾로 문자표기 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문자 표기는 예(27)과 같이 에도기의 작품『春色梅児誉美』『春告鳥』에서 사용예가 보였다. 그러나 메이지기의 분석 작품에서는 예(28)와 같이 편지글에서 사용예가 보였다. 분석 작품 내의 대부분의 메이지기의 작품에서는 여성화자의 대화 속에서는 예(29)과 같이 ‘ください’가 사용되었다. 또 예(30)과 같이 ‘くだされ’가 보였는데 이는 메이지기의 樋口一葉의 작품과 같은 구어체 작품이 아닌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보인 형태였다.

다음은 에도기의 작품에서 보인 ‘くださる’의 여성화자의 사용례다.

(31) お上がり被成てくださいまし [『春』お長→藤兵衛]

(32) イエ、何とおいひなさっても単さんとやらの在家はぞんじません
ア、いたどぶそおゆるしなさってくださいまし。 [『春』お長→若者三人]

에도기의 『春色梅児誉美』『春告鳥』에서의 여성화자는 예(31)(32)처럼 ‘ます’가 접속된 어형을 주로 사용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에도기의 작품에서 여성화자는 ‘주는 자’가 연령 및 신분상 손위에 해당되는 인물 또는 남성 손님일 때 ‘くださる’의 어형을 사용했고, ‘주는 자’에 대한 경의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었다.

다음은 메이지기 및 다이쇼기의 작품에서 보인 ‘くださる’의 사용례를 대화 속에서 화자가 형성하는 인간관계에 따라 분석했다.

(33) 事業? 壮健に成ればいくらでも事業は出来ますわ。あゝ、一緒に東京

14) 吉田金彦『現代語助動詞の史的研究』明治書院 1971 p.581

‘くださる’는 鎌倉・室町시대에는 ‘被下’의 문자로 표기되었다고 한다.

へ帰って下されば好いんですのに。[『破』連太郎の婦人→連太郎]

(34) 私に悪い所があるなら遠慮なく行って下さい。[『こ』선생님의 부인→선생님]

(35) 下へ行つたら驚見を寄來してくれ。[『多』葉山→お種]

여성화자의 대화 영역 가운데, 부부의 경우 예(33)(34)처럼 아내는 'くれる'보다 'くださる'의 사용이 보편적이었던 반면, 남편은 (35)와 같이 'くれる'의 사용이 많았다. 또 호칭에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 'お前さん' 'あなた'등을 사용했지만, 남편은 아내에게 'お前'을 사용했다. 남성화자가 아내 이외의 타인에게 사용한 'お前'란 호칭은 분석 작품 속에서 사용례를 보면 하인과 같은 손아래의 인물이었다.

(36) 「母親さん、心配しないで居て下さいよ、奈何な事が有つても私が承知しませんから」[『破』お志保→蓮華寺の奥さん]

(37) 伯父さま暇を取つて下され、私は最早奉公はよします。[『樋口·大』お峰→伯父]

부녀와 모녀 사이의 경우, 여성 화자는 양모와 부친과 같은 존재에 해당되는 남성인물에게 예(36)(37)과 같이 'くださる'를 사용했으며, 다소 손위의 인물에게 순종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38) 「慈母さん、今日から、私を下宿さしてお呉んなさいな」[『浮』お勢→お政]

물론 예(38)과 같이 모친에게 'お呉なさる'의 어형이 사용되기도 했지만, 보편적으로 'くださる'가 사용되었으며, 모친과 양모에 대한 호칭으로는 '母人さん' 『春』 '慈母さん' 『浮』 '母親さん' 『破』와 같이 '~さん'을, 부친 또는 부친과 같은 존재에게는 '~さま'를 사용했다.

부부간의 아내로서의 여성화자와 부모자식간의 자식으로서의 여성화자는

절대적인 상하관계에 따른 표현이 중심이 되어 사용되었지만, 가족의 둘레를 벗어난 여성과 남성과의 대화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39)『まあ御上りなすつて下さいませんか、此様な見苦しい処で御座ますけれど。』

【『破』 お志保→銀之助】

(40)古藤さん、あなた貧乏籤を背負い込んだと思し召して、どうか二人を見てくださいませな【『或』葉子→古藤】

(41)真実に？ 真実に貴方は左様考へて下さるんですか——【『破』銀之助→お志保】

(42)「早月さんお願いだ。ちょっとあけてください」【『或』倉地→葉子】

전전(戰前)·전중(戰中)의 서민 언어 특징을 분석한『昭和が生んだ日本語』에 따르면¹⁵⁾, 젊은 여성은 남성의 동작에 대해 존경어를 쓰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겸양어를 쓰지만, 남성은 여성에게 경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메이지기의 작품 역시 여성화자는 남성청자에게 예(39)과 같이 ‘くださる’를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남성화자가 여성에게 ‘くれる’만 사용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메이지기의『破戒』와 다이쇼기의『或る女』에서 남성화자는 ‘주는 자’인 손아래의 상대여성에게 ‘くれる’가 아닌 ‘くださる’를 사용한 예가 (41)(42)과 같이 보였는데, 이때의 여성은 교사의 딸 또는 교육을 받은 여성이었다.

(43)お> 正太さん宜く来て下さつた【『樋口・たけくらべ』美登里の母→正太郎】

(44)『訳を御話しませんから、不思議だと思つて下さるかも知れませんが——』【『破』蓮華寺の奥さん→瀬川】

분석 작품 가운데 메이지 20년대 이후의 작품에서는 ‘주는 자’가 손아래의

15) 遠藤織枝『昭和が生んだ日本語—戦前・戦中の庶民のこぼれ—』大修館書店, 2012, pp.87~100

인물인 경우의 사용례가 증가했다. 위의 (43)(44)는 행위의 ‘주는 자’가 연령상 손아래의 인물에 해당되더라도, 예(43)처럼 화자의 집안이 예기출신이거나, 예(44)처럼 상대가 사회적으로 직위가 있는 인물일 때는 ‘くださる’를 사용했다.

(45) 「まあ、どうぞおかけくださいませ……、おや雪さんもごいっしょに、……さア、雪さん、こっちにおはいらなさいませよ」[『田』清三の母→郁治の母]

(46) 「これは私の部屋よ。さあどうぞ御遠慮なしにお通り下さい。」[『伊』千代子→私]

(47) どうぞ少しお待ち下さいませ。[『山 安寿の母→山岡大夫]

(48) え、それはお聞きくださればどんなにでもお話はしましょうとも。[『或』葉子→古藤]

‘くださる’보다 정중한 표현이라고 다루어지고 있는 ‘お~くださる’의 어형은 분석 작품 가운데 메이지기와 다이쇼기의 작품에서 보였다. 상대의 행동을 정중하게 유도할 때나 상대에게 간청할 때 사용되었으며, 상대는 예(45)와 같이 뚜렷한 상하관계는 없지만 연배가 있는 사람, 예(46)과 같이 손님에 해당되었다. 또한 상대에 대한 비꼬는 심정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예(48)과 같이 정중한 표현이 사용되기도 했다.

(49) ぜひお会いになってくださいませ。[『或』葉子→古藤]

다소 사무적이고 딱딱한 느낌을 주는¹⁶⁾ ‘お~になってくださる’의 어형은 에도기의 작품에서는 보이지 않았고, 메이지기의 작품에서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 용례 수는 매우 적었다. 분석 작품 내에서의 ‘お~になってくださる’의 어형은 예(49)과 같이 손아래의 남성 상대에게 여성화자는 상대의 입장에 서서 최대의 예의를 갖추고 표현하는 데에 사용했다.

16) 尾形桂助 「(て)ください」の文法,神戸松蔭女子学院大学, 文林30, 1996

에도기의 작품부터 다이쇼기의 작품 속에 사용된 여성화자의 ‘くださる’의 용례 수를 보면, [표 6]과 같다.

[표 6] 작품에 나타난 ‘くださる’의 화자별 용례 수

春	鳥	当	浮	夏	樋	多	破	田	蒲	こ	山	或	伊
12/4	12/2	8/4	4/5	2/5	56/6	16/38	13/64	5/4	12/0	13/15	6/2	146/66	10/2

[작품에서 보인 ‘くださる’의 여성화자의 용례 수 / 남성화자의 용례 수]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くださる’는 남성화자 보다 여성화자의 사용이 우세했다. 에도기의 작품『春色梅児誉美』『春告鳥』과 메이지 10년대 작품인 『当世書生氣質』와 문어체적인 요소가 남아있는 『樋口一葉』의 작품에서는 여성화자의 사용이 많았다. 또 여성 제자와 남성 스승의 대화가 중심인 『蒲団』과 남학생과 무희 일행과의 이야기를 그린 『伊豆の踊子』에서 여성화자의 사용이 돋보였다. 그러나 남성 캐릭터의 비중이 큰 작품에서는 남성화자의 사용이 많았다.

이상은 메이지기를 중심으로 에도기와 다이쇼기를 더해 여성화자의 사용양상을 분석했다. 다음은 ‘くれる’ ‘くださる’의 상하관계에 따른 어형에 대해 서술한다.

4. ‘くれる’ ‘くださる’의 대우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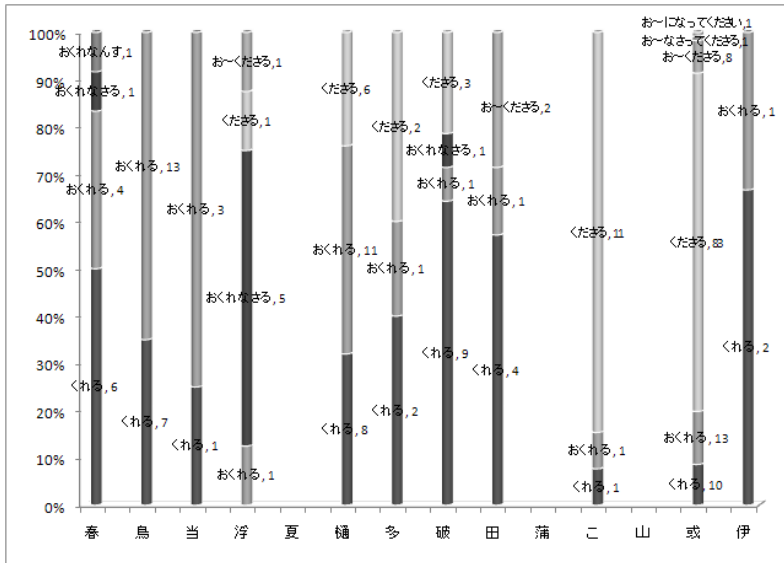
井出洋子は 대우표현이란 화자가 상대와의 사회적·심리적 거리에 응한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언어수단이라 정의하고, 사회적 거리란 사제 간의 거리, 형제간의 거리, 친구사이의 거리 등과 같이 사회적 지위의 상하, 연령차, 친소(親疎), 장면이 사회 통념에 따라 정해진 거리이고, 심리적 거리란 화자와 상대에 의해 개인적으로 만들어진 거리라고 설명했다.¹⁷⁾ 과거의 제한된 대인

17) 주10)과 같은 책 pp.111~112

나타내는 표현인 ‘なさる’ ‘なんす’ ‘なます’ 등을 이용한 ‘くれる’의 표현이 ‘くださる’보다 많았으며, 메이지기의 작품 및 다이쇼기의 작품에서는 ‘くださる’의 표현이 많았다. 메이지기의 작품 가운데, ‘주는 자’가 손위의 인물일 때 ‘くれる’를 이용한 표현으로는 ‘おくれる’ ‘おくれなさる’가 보였는데, 이 때 ‘주는 자’는 여성화자와 상대와의 사회적 거리와 심리적 거리가 모두 가까운 가족과 같은 가까운 인물에 해당되었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대등한 경우로서 신분의 차이가 없고, 동년배의 그룹으로 다루었다. 대등한 관계의 여성 화자의 사용례는 적었으며, 단지 메이지의 작품에서는 ‘おくれる’의 어형과 ‘お~くださる’의 어형이 보였다. 『樋口一葉』의 작품에서 나이가 어린 그룹에서는 ‘おくれる’의 어형이 사용되었고, 『田舎教師』에서 연배가 있는 그룹에서는 ‘お~くださる’의 어형이 사용되었다.

[도표 2]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손아래에 해당될 때



‘주는 자’가 손아래의 인물일 때, [도표 2]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에도기의 작품과 메이지 10년대의 『当世書生氣質』에서는 ‘くれる’가 중심이 되어 사용되었지만, 메이지 20년대 이후 작품부터는 ‘くださる’의 사용이 상당수 차지했다. 교양 있는 사회집단에 속한 여성화자가 ‘주는 자’가 손아래라 하더라도 상대에 대한 존경 및 배려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여성화자가 느끼는 소원감과 대외적인 활동 영역에 따라 ‘くださる’의 ‘주는 자’를 결정하는 경향이 보였으며,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상대에 대한 존경 및 배려 의식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했다.

5. 마무리

본고는 여성 화자의 발화를 중심으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언어 변혁의 시도가 있었던 메이지기와 에도기 및 다이쇼기의 ‘くれる·くださる’의 사용양상을 알기위해 문학작품의 사용례를 통해 수수동사에 대해 고찰했다.

작품 속에 나타난 성차에 따른 용례수를 보면 다음과 같았다. ‘くれる’의 경우, 에도기의 작품에서는 여성화자의 사용률이 높았지만, 메이지기의 작품과 다이쇼기의 작품에서는 에도기에 비해 상당수 감소했다. 에도기의 작품에서 여성화자의 사용률이 높았던 이유는 ‘くれる’의 어형이 여성어로 다루어지고 있는 ‘なはる’ ‘なます’ ‘なんす’ 등이 접속된 표현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くださる’는 여성 화자의 사용이 우세했다. 특히 에도기의 작품과 메이지 10년대 작품인 『当世書生氣質』은 다른 작품에 비해 여성화자의 사용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작품 속의 여성화자는 예기나 친족관계 상의 아내, 자매, 모친, 자녀 등의 한정된 대인관계에서 벗어나 젊은 남녀, 선생님과 제자 등으로 확대되면서 메이지기의 수수동사의 사용은 에도기의 작품에서 보인 것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에도기의 작품에서는 신분에 따른 상하관계에 의해 여성화자가 ‘くれる’ ‘くださる’의 표현형태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메이지기의 작품의 경우, 여성화자는 상대에 대한 존경 및 배려의식에 따라 ‘くださる’ 표현이 상하관

계와 별개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또 다이쇼기의 작품에서는 화자가 ‘주는 자’에게서 느끼는 경원, 경외, 소원감과 장면상황에 의해 화자가 ‘くれる’ ‘くださる’의 표현 형태를 정했고, 또 화자는 ‘주는 자’가 손아래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상대에 대한 존경 및 배려 의식을 보였다.

상하관계에 따른 ‘くれる’ ‘くださる’의 사용은 다음과 같다. ‘주는 자’가 손위의 인물일 때, 에도기의 작품에서는 경의를 나타내는 표현인 ‘なさる’ ‘なんす’ ‘なます’ 등을 이용한 ‘くれる’의 표현이 ‘くださる’보다 더 많은 사용례를 보였지만, 메이지기의 작품 및 다이쇼기의 작품에서는 ‘くださる’의 사용례가 많았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동년배일 때의 여성화자의 사용례는 적었지만, 메이지기의 작품에서는 나이가 어린 그룹에서는 ‘くれる’ ‘おくれる’가 사용되었고, 연배가 있는 그룹에서는 ‘くださる’가 사용되었다. ‘주는 자’가 손아래의 인물일 때, 에도기의 작품과 메이지 10년대의『当世書生氣質』에서는 ‘くれる’가 중심이 되어 사용되었지만, 메이지 20년대 이후의 작품 및 다이쇼기의 작품에서는 ‘くださる’의 사용이 많았다.

❖ 참 고 문 헌

- 양정순 「메이지·다이쇼작품의 てくれ・てくださ이의 표현양상」『비교문화 연구』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2
- 히라타 유미 『여성표현의 일본근대사』 소명출판, 2008
- 井出洋子 「待遇表現と男女差の比較」 『日英語比較講座第5巻 文化と社会』,
1982
- 遠藤織枝 『昭和が生んだ日本語—戦前・戦中の庶民のことば—』大修館書店,
2012
- 尾形桂助 「(て)ください」の文法, 神戸松蔭女子学院大学, 文林30, 1996
- 娱津敬一郎 「日本語の授受動詞構文」-英語・朝鮮語と比較して- 『人文學報』
132 東京都立大学, 1979

- 金久保紀子「待遇表現としての授受表現」, 『日本文化研究』第四号, 1993
国広哲弥『日英語比較講座第5巻文化と社会』, 大修館書店, 1982
古川俊雄「日本語の授受動詞「下さる」の歴史的変遷」, 広島大学教育部紀要 第二部 第45號, 1996
小島俊夫「洒落本・滑稽本・人情本の敬語」『近世の敬語』明治書院, 1974
佐久間鼎『現代日本語の表現と語法』厚生閣, 1936
佐藤武義『概説日本語の歴史』朝倉書店, 1995
菅野則子 文字・文・ことばの近代化, 同成社, 2011
沼田善子「授受動詞文と対人認知」, 日本語学, 『明治書院』, 1999
東森薫「意味のコンテクスト依存性」『朝倉日英対照言語学シリーズ7 語用論』, 2012
松村明『近代の国語-江戸から現代へ-』, 桜風社, 1977,
前田勇『江戸語の辞典』講談社, 1979
村田和代「ポライトネス」『朝倉日英対照言語学シリーズ7 語用論』, 2012
吉田金彦『現代語助動詞の史的研究』明治書院, 1971

❖ ABSTRACT

A Study on Giving Verbs ‘kureru’ and ‘kudasaru’:
by Analyzing Dialogues of Female Speakers in Novels of the
Edo Period, Meiji Period and the Taisho Period-

Yang, JungSoon

This study aims to know word forms and usages according to personal relationships of ‘Kureru · Kudasaru’ by analyzing dialogues of female speakers. Novels of the Meiji period when there were attempts of a language revolution were mainly used for this study as well as novels of the Edo Period and the Taisho Period.

Firstly, the number of examples according to gender differences in the novels was as follows. In case of ‘Kureru’, female speakers showed a high usage rate in the novels of the Edo period. ‘Kureru’ was mostly connected with female languages such as ‘Naharu’, ‘Namasu’, ‘Nansu’. These expressions were not used in the novels of the Meiji Period and the Taisho Period. Although ‘Okureru’ and ‘Okurenasaru’ were used in the novels of the Meiji Period, the number of examples of ‘Kureru’ by female speakers was decreased in the novels of the Meiji Period and the Taisho Period. ‘Kudasaru’ was predominantly used by female speakers. Especially, female speakers used clearly to show vertical relationships in the novels of the Edo Period and 『Doseishoseikatagi』 of Meiji 10s. After 『Ukigumo』, the usage rate of female speakers was decreased but the usage rate of male speakers was increased. Gender differences became gradually smaller.

Female speakers in the novels were increased from geisha and relatives such as wife, sister, mother and children to young women, teacher and student. Aspects of benefactive verbs' usage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emale speakers at licensed quarters used clearer and more typical expressions according to vertical relationships and gender differences in the novels of The Edo Period than the novels of The Meiji Period and the Taisho Period. In the novels of the Meiji Period, female speakers in a sophisticated social group used benefactive verbs

to show strong respect and concern for the other person. In the novels of the Taisho Period, female speakers used benefactive verbs to show respect and concern for the other person according to their areas of outside activities.

In the novels of the Meiji Period, female speakers used 'Okureru' when the other person was younger than them and was socially and psychologically close to them. Also, 'O~Nasaru' which was one of respect expressions was used by female speakers. Female speakers used it to older people in the Edo period but they also used it to younger people in the Meiji Period. Examples were not shown in the novels of the Taisho Period.

Usages of 'Kureru' 'Kudasaru' according to vertical relationships were as follows. If 'a giver' was an older person, 'Kureru' with respect expressions 'Nasaru' 'Nansu' 'Namasu' was used more than 'Kudasaru' in the novels of the Edo Period. However, many examples of 'Kudasaru' were shown on the novels of the Meiji Period and the Taisho period. In the novels of the Meiji Period, 'Okureru' and 'Okurenasaru' which were expressions included in 'Kureru' were shown. Female speakers used them to older people who were socially and psychologically close to them like family.

There were not many examples of 'a giver' and 'a receiver' around the same age. However, 'Kureru' and 'Okureru' were used in a younger group and 'Kudasaru' was used in an older group in the novels of the Meiji Period.

If 'a giver' was a younger person, 'Kureru' was mainly used in the novels of the Edo period and 『Doseishoseikatagi』 in Meiji 10s. However, 'Kudasaru' was used many times in the novels of the latter Meiji Period and the Taisho Period.

Key Words

대우표현, 플라이트니스, 여성화자, 수수동사, 은혜동사

respect expressions, politeness, Female speakers, Give and Receive Verbs, benefactive verbs

394 비교문화연구 제31집 (2013. 6.)

논문접수일: 2013. 05. 10.

심사완료일: 2013. 06. 02.

게재확정일: 2013. 06. 07.